



Photo | 김충신 집사(소망-5)

매일묵상
2022. 3월호

발행인 | 조재호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행 | 신앙운동팀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산영교회 창립 40주년)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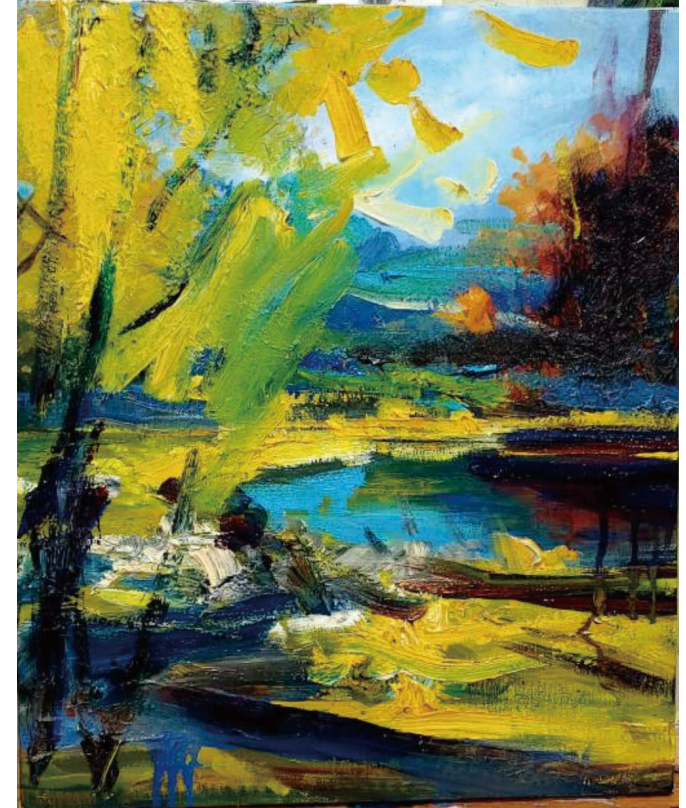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월 그라티아 갤러리



[만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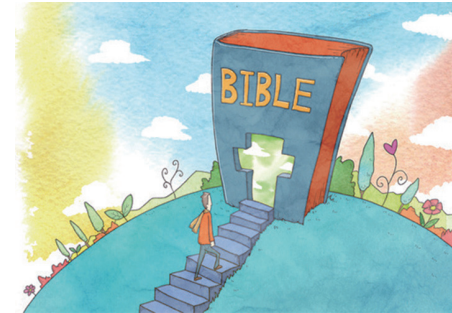
이 세 영 작가

개인전 및 단체전 다수 참여
담솔회 / 수작회 회원, 인사동사람들 회원

유난히도 힘에 겨웠던 지난여름 한편의 기억들... 미치도록 그립고 사랑했던 푸르렀던 그 날들... 이젠 가로수길에 너른 들판에 흩날리는 기억 저편의 조각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한 가닥 희망과 같이 어느 한 분이라도 마음의 치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 3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이세영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3·4월 달력	04
3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사순절이란?	08
매일묵상 '위드유' 가정예배	20, 34, 50, 64
사무엘하 해설	36
열왕기상 해설	66
이달의 신앙도서 『회복의 신앙』	76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 신앙공동체의 힘 김해리 청년	78
매일묵상을 통한 은혜 윤경식 학생	81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디아코니아(2) 찬양부	84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우크라이나 임광택 파송선교사	87
교회소식	89
예배 안내	
부록	
- 다윗과 골리앗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이세영 작가의 '만추'	

기도를 배우다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 종교개혁자, 신학자)

영국의 종교개혁자, 신학자이자 감리교 교회의 창시자.
사람들에게 종교적 체험과 성결한 생활을 역설하고,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대규모적인 신앙 운동을 전개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와 모든 이웃에게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열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대화할 때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시고
자신의 일을 추진할 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을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채찍을 맞을 때 잘 참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착한 말과 행실을 하도록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김영봉, [사림의 기도], IVP 2002, 89.

3

2022

사랑의 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삼일절 • 월삭새벽기도회	2 • 재의 수요일 • 광샘문화교실 봄학기 개강	3 • 2.1	4	5 • 경칩 • 불일제 심방 시작
6 • 천양아카데미 시작 • 어와나 1학기 개강	7	8	9 • 20대 대통령 선거	10	11	12
13 • 남선교회 주일 • 새봄 축복대성회 (13-15)	14	15	16	17 • 2.15 • 기도학교 개강 • 은빛시니어 1학기 개강	18	19 • 마더와이즈 자유3기 개강(9주)
20	21 • 춘분	22	23	24	25	26
27 • 이단대응 세미나	28	29	30	31		

TO DO LIST

☐	☐
☐	☐
☐	☐
☐	☐
☐	☐

4

2022

부활의 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3.1 • 월삭새벽기도회	2
3 • 회망의 복지재단 헌신예배	4	5 • 청명	6 • 한식	7	8	9
10 • 종려주일 • 상반기 세례입교식	11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1-16)	12	13	14 • 세족목요일 성찬예배	15 • 3.15	16
17 • 부활절	18	19	20 • 곡우	21	22	23
24	25	26 • 5060하프타임 (4주) 개강	27	28	29	30

TO DO LIST

☐	☐
☐	☐
☐	☐
☐	☐
☐	☐

3월 [오늘의 말씀]

1일	사무엘상 9-10장	16일	사무엘하 5-7장
2일	사무엘상 11-12장	17일	사무엘하 8-10장
3일	사무엘상 13-14장	18일	사무엘하 11-12장
4일	사무엘상 15-16장	19일	사무엘하 13-14장
5일	사무엘상 17장	20일	주 일
6일	주 일	21일	사무엘하 15-16장
7일	사무엘상 18-19장	22일	사무엘하 17-18장
8일	사무엘상 20-21장	23일	사무엘하 19장
9일	사무엘상 22-23장	24일	사무엘하 20-21장
10일	사무엘상 24-25장	25일	사무엘하 22장
11일	사무엘상 27-28장	26일	사무엘하 23-24장
12일	사무엘상 29-31장	27일	주 일
13일	주 일	28일	열왕기상 1장
14일	사무엘하 1-2장	29일	열왕기상 2장
15일	사무엘하 3-4장	30일	열왕기상 3-4장
		31일	열왕기상 5-6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사순절이란?

1.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시작됐으며 부활절 전 일곱 번째 주간의 '참회의 수요일'(재의 수요일)에 시작해 40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2. 사순절 기간의 변화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은 1세기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40시간을 기념하며 40시간 동안 지키다가 3세기에 이르러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30일간으로 연장됐고, 마침내 니케아 공의회(A.D. 325)에서 지금의 40일간 지키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3. 사순절의 신앙적 의미

1) 세례받을 자들의 준비 기간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에 세례받기 위해 훈련받는 이들에게 특별히 금식을 요구했고 시간이 지나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도 요구했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사순절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2) 개인적인 경건과 회개

사순절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게 됐으며 성도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간으로 지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5-6세기에 이르러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사순절은 참회적인 차원의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됐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의미가 강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4. 오늘날 우리에게 사순절이란?

사순절은 초기에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순절을 무엇보다도 세례와 회개를 통한 참된 돌이킴의 시간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죽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역설을 깨닫고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시간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9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9-10장

오늘의 말씀 | 삼상 9-10장

9장에서 사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테니 기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가장 미약한 자라며 겸손을 보였고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10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이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해 예언하며 새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사울은 왕을 뽑는 자리에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모두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9:1-24

사울은 아버지의 요청에 잃은 나귀를 찾아 사환과 길을 나섰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울의 태도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엘리의 두 아들이나, 사무엘의 두 아들과 비교가 됩니다.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 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왕이 존재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사울이 보여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은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사울과 비교해 볼 때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2. 중등부와 함께하사 청소년 시기에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3.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고 안전한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2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1-12장

오늘의 말씀 | 삼상 11-12장

11장에서 암몬이 야베스 사람을 치자 온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소집했고 삼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6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을 반대했던 자를 죽이자고 할 때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은 지도자로 있는 동안 하나님과 백성 모두 인정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 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11:1-15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하자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이 일에 사울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백성들을 소집하자 삼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삼 대로 나누어 공격했고 새벽부터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 이후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며 정식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까지도 품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사울이 야베스 전령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소집에 응해 삼십만 명이나 모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룩한 분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 고등부와 함께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 교회 안에 세우신 리더들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다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70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14장

오늘의 말씀 | 삼상 13-14장

13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년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로 인해 이스라엘은 숨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채 번제를 드렸고 이로 인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4장에서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며 블레셋을 기습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겼습니다. 사울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는 서약을 했고 요나단이 걸렸지만 백성들로 인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13:1-15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군대가 흠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변명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이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 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울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사울은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2. 청년공동체와 함께하사 젊음의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3. 나라 안의 모든 우상과 거짓들은 무너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뜻만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5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5-16장

오늘의 말씀 | 삼상 15-16장

15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것을 남겨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며 사울을 책망합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새롭게 다윗을 택하셨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막내 다윗을 만나 기름을 붓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자 다윗은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게 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15:1-33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고 좋은 것을 따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를 본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라며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기보다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따랐고 회개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신속하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묵상해봅시다.
- *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신속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2. 은빛시니어학교와 함께 하사 세우신 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소서.
3. 여러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8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오늘의 말씀 | 삼상 17장

17장은 이스라엘은 싸우러 온 블레셋을 맞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은 거인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췄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의 칼로 머리를 베었고 이를 보고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쫓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17:12-54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더 이상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밖에 없었지만 여호와와 신이 떠난 사울은 장막 안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왕을 둔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주는 갑옷과 무기가 아니라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한 무기 '물매'를 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높이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거인 골리앗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도망치는 블레셋을 쫓아가 크게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 *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싸우기로 결심한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 없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어와나와 함께 하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소서.
3.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요셉의 신앙고백

찬 양

찬송가 510장

말 씬

창세기 45장 1-5절

나 누 기

드디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질 문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 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서로 고백해 보세요.

암 송

창세기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3월 6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70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8-19장

오늘의 말씀 | 삼상 18-19장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의형제를 맺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명하는 일을 지혜롭게 잘 해내어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크게 노하여 시기하고 의심하며, 악령이 강하게 내리 덮치자 궁궐에서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지르며 다닙니다. 다윗이 전에 하던 대로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창을 피하자 사울이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하여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대승을 거두어 백성들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하심을 알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사위를 삼을테니 블레셋과 싸워서 자신의 용맹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해칠 모략이었으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사울에게 가져가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19장에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여 숨게 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고 두둔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충언합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왕궁을 떠나 라마 나뭇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19:18-24

미갈의 도움으로 집에서 나간 다윗은 자기 고향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식구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뭇으로 가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선지자들의 한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의 추격대와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들처럼 그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신뢰하고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 나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가도록 도운 이는 아내 미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59편처럼,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까?
- *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라마나뭇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2.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이 잠시 멈춰있는 교회학교전도대를 기억하시고 사역이 회복되고 교회학교 다음세대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3.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실수할 때 고난받을 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1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21장

오늘의 말씀 | 삼상 20-21장

20장에서 다윗이 라마 나뭇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갑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절규하듯 호소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거짓말하며 다윗이 잡히지 않고 피하도록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다음 왕으로 자신이 아닌 다윗을 세울 것이라 말하며,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의형제의 맹세를 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며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21장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 놈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자, 다윗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중이라 혼자 왔다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인 도역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곳을 떠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붙잡아 아기스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두고 춤추며 노래하던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자 아기스는 어찌하여 이런 미친놈을 내게 데려왔느냐며 다윗을 내쫓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21:10-15

시편56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였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차라리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친 판단은 큰 실수였고 그로 인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의지하여 건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놈에서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신중하지 못하고 거짓말이나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 다윗이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앞에서 미친 척하였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수치와 모멸감을 무릅쓴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시편 119:71)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실수로 어려움이 생길 때와 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소서.
2.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이 회복되어 식당봉사팀의 사역도 재개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3. 코로나 방역당국과 방역시설의 공무원과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민센터와 공공 복지시설들이 코로나시국 소외된 주민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묻고 또 묻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5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2-23장

오늘의 말씀 | 삼상 22-23장

22장에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난 후 아둘람 동굴로 도망하니, 다윗의 형제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은 물론, 사울의 폭정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400명가량이니 됩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고, 선지자 갓의 권유대로 유다 땅 헤렛 수풀로 갑니다. 사울은 도액을 시켜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 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23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들의 타작한 곡식을 마구 강탈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블레셋과 싸워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크게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합니다. 그 때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 성읍을 포위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사울이 그일라 성에 올 것인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자 곧 그일라 성을 피하여 광야의 요새와 십 황무지로 갑니다. 사울이 군대를 또다시 이끌고 와서 다윗을 추격할 때에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었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하려 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멈춥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22:9-22

다윗이 놉에서 자기의 배고픔을 면하자고 거짓말을 한 것이 제사장 85명을 죽게 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 일을 후회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상태일 때 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일 이후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삼상23:2-4).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묻고 확인받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내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아둘람 굴로 피신한 이후 다윗은 고난 당한 자들을 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 중 고난의 때가 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품어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주신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품고 섬겨 복음으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 나는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묻고 또 묻습니까? 주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한 후에도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 묻습니까? 계속 묻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까?

오늘의 기도

1. 고난 당한 자들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 물으며 순종케 하소서.
2.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쓰는 데코팀과 조경팀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소서.
3. 지구 기후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를 인식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써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대적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10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4-25장

오늘의 말씀 | 삼상 24-25장

24장에서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까지 갔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까닭으로 사울이 돌아가자 다윗은 험한 바위가 많은 엔게디 황무지로 몸을 피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고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의 무리보다 5배나 많은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이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무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름을 받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사울의 겹옷 자락만을 자릅니다. 사울이 나가자 다윗이 사울을 부르고 겹옷 자락을 보이며 자기는 왕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어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하였습니다. 그 무렵 마온에 있는 갈렙 족속의 나발이라는 자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젊은이들을 보내 그에게 양식을 구하게 합니다. 나발은 갈멜에 있던 다윗의 도움으로 양을 잃지 않아 큰 부자가 된 자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경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격분하여 용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진멸하러 출격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와 섬김으로 다윗은 그들을 해하지 않고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나발은 몸이 돌처럼 굳어 지더니 열흘쯤 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24:4-5

다윗은 사울의 겹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찢려 어쩔 줄 모릅니다.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행13:22)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사울과 같은 교회 내 권위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내 영적 권위와 질서를 늘 보호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 * 다윗처럼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원수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롬12:19)을 믿고 기도합니다.
- *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섬김으로 리더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헬퍼가 교회 팀사역마다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며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소서.
2. 상례팀과 새하늘찬양대의 사역이 재개되고 장례때마다 유가족을 위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복음전파와 신앙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소서.
3. 대통령과 사회 각 분야에 좋은 지도자들이 바르게 지도하며 온 국민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바른 신앙 바른 회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8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6-28장

오늘의 말씀 | 삼상 26-28장

26장에서 다윗은 24장 엔게디 동굴에 이어서 심황무지에서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27장에서 다윗은 사울로 인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자 600명의 공동체를 이끌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관할하는 시글락으로 가서 머무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땅을 치고, 블레셋을 도와 유다 땅을 침략한 것처럼 아기스에게 거짓말로 안심시킵니다.

28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이 한 영을 불러내자 사울은 그를 사무엘이라 여기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28:15-25

사울은 사무엘로 위장한 사탄을 알아채지 못하고 끝까지 사탄이 사무엘인 줄로만 압니다. 사탄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고, 그의 나라도 다윗에게 떼어 주셔서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군대도 블레셋 군에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사실을 과장되게 부풀려 말합니다. 이 자가 사무엘이 맞다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말하여 사울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게 합니다. 사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혼합주의 무속신앙에 빠져 오늘의 운세나 점을 치거나 미신과 징크스를 믿고 요행과 행운을 바라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 살피며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세우길 기도합니다.

* 현재 죄를 지은 후 회개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근심하는 마음(딤후1:7)을 주셔서 속히 회개하시길 원하십니다. 못다한 회개가 있다면 참된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회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2. 문화스포츠부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이를 통해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3. 사회에 만연한 험담과 비난의 문화를 제거해 주시고, 대립과 갈등의 사회 분위기가 치유와 통합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공동체적인 나눔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2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9-31장

오늘의 말씀 | 삼상 29-31장

29장에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각기 수백, 수천 명씩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맨 뒤에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냐며 트집을 잡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온 후 단 한 번도 허물이 없었다며 다윗을 변호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전쟁 중에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면 그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다음날 새벽에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되돌아갑니다.

30장에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 용사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결국 불참하게 되어 거처로 되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간 것을 발견합니다. 큰 슬픔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던 공동체 용사들이 분노하여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서 그들을 쫓아가라는 답을 듣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다 지친 200명은 브솔 시내에 머물고, 다윗은 남은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쳐서 크게 이기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옵니다.

31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사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세 아들을 죽이고 사울은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 죽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상 30:21-31

아말렉을 쫓을 때 출전했던 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주지 말고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에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며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리품 중에 얼마를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냅니다. 다윗이 함께 나누자고 했을 때의 마음을 묵상해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예수님의 잃은 아들의 비유(눅15장)의 큰아들처럼 교회의 재정과 사랑과 관심이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못마땅하거나 불만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더불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 자살로 일생을 마친 사울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겸손함과 온전한 순종으로 사명을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2. 꿈샘문화교실이 재개되게 하시고 다양한 문화적 접근 방법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소서.
3. 퇴폐와 향락문화, 무속과 이단적인 사상과 사이비 종교가 이 땅에서 끊어지며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문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

찬 양

찬송가 300장

말 씀

고린도후서 1장 1-11절

나 누 기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질 문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암 송

고린도후서 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3월 13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1. 저자와 연대

사무엘하의 저자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대상 29:29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 나단, 그리고 갓의 글이 이미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누군가가 사무엘하를 기록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기록연대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통치 기간인 대략 주전 1010~970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2. 배경과 목적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는 다윗의 40년간의 통치 기간의 기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앗수르는 이제 막 중흥기의 초기 단계였고, 애굽 역시 제3중간기에서 외부로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러한 상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특히 다윗 왕국의 이야기는 장차 임하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아래에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궐의 이동 경로〉

3. 내용과 구조

사무엘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서 전체 구조 속에서 사무엘하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삼상1-12장	삼상13-31장	삼하1-24장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삼하 1:1a)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이었다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1) 다윗의 상승기(1-5장)

모세 이후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기 직전의 장면에서 막을 엽니다.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정치적·영적·군사적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국의 주요 거점을 정복합니다.

2) 다윗의 전성기(6-10장)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3) 다윗의 쇠퇴기(11-20장)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므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4) 다윗 이야기의 마무리(21-24장)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시를 지어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다윗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슬픔을 통한 배움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91장
-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오늘의 말씀 | 삼하 1-2장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말렉 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1:11-16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두 사람을 위해 조가를 지어 부를 만큼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1:26).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최근 들었던 가장 슬픈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죽음까지 애통해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가지만 적어봅시다.
- *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은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2.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방송팀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과 사역에 복을 내려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정치를 하게 하소서.

관심 있나요?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15장
-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3-4장

오늘의 말씀 | 삼하 3-4장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점점 강성해졌으나 사울의 첩 '리스바 사건'으로 이스보셋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 살해당했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이었던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왔지만 다윗은 그들을 처형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3:31-39

스루야의 아들(요압과 아비새)의 손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한 충성심으로 아브넬을 죽였다 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동생 아사헬의 복수심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은 다윗에게 속한 인물들이지만 다윗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보여준 충성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충성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강력했던 스루야의 아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을 불편하게 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든 일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 *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최근 내 삶의 키워드 세 가지를 적어봅시다.
- *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기록하고 실천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전산팀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3.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고척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존재함이 고척동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623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5-7장

오늘의 말씀 | 삼하 5-7장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시온 산성을 정복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 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옵니다.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옷사는 죽임을 당하고 오벧에돔의 집은 복을 받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7:11-13

다윗은 자신의 명성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고 네 후손을 네 뒤에 세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을 듣고 난 이후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계획을 조율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도 감사해 봅시다.
- * 본문 묵상을 통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한 다윗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언어로 말해 봅시다.
- *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던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아야 할 일(To Do Not List)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미디어홍보팀의 사역을 통해 더 넓은 지역과 더 많은 세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이 세대별-계층별-지역별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대국이 되게 하소서.

헤세드의 사랑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9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8-10장

오늘의 말씀 | 삼하 8-10장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자신의 신하들이 수치를 당하자 암몬과의 전쟁을 벌여 승리하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9:1-8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종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 므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린 므비보셋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하며 스스로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삼상 20:42). 다윗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 있는 자들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봅시다.
- *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린 약속은 없는지 돌이켜 봅시다.
- * 우리가 가진 힘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2. 새물결팀의 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소서.
3. 북한의 지도층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북음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23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12장

오늘의 말씀 | 삼하 11-12장

전쟁 중에 다윗은 온 군대를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까지 죽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이레 만에 죽게 되었고 이후에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12:7-15

다윗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골리앗과 밋세바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다윗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무명 시절에 만났던 존재이고, 밋세바는 다윗의 전성기 때 만나게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해지고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힘이 있을 때 범 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 *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시다.
- *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선교부원들(세계선교팀, 국내선교팀, 다문화선교팀)이 서로 협력하고 충성스럽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68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3-14장

오늘의 말씀 | 삼하 13-14장

‘다윗과 밋세바’ 사건 직후에 다윗의 집안에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다말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으로서 암논의 이복여동생입니다. 암논은 강한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여 억지로 동침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듣고 분개하였지만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 2년 뒤, 압살롬은 복수를 위한 계락을 세웠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왕가에 대한 반란으로 잘못 소문이 나서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음을 확인한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통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13:11-19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에게 동침하자 하였을 때 다말은 냉철하게 암논의 행동을 막아섭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이 거짓이라는 점은 금세 드러납니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13:15). 다말은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13:16) 하였지만 여전히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암논과 지혜로운 다말이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암논은 왜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해 봅시다.
- *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선행으로 자신의 죄악을 포장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 봅시다.
- *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빠뜨리지 말고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의 기도

1.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청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2. 선교사님들(우크라이나 임광택, 몽골 정홍재, 일본 강장식, 방글라데시 엄명희 외 협력선교사님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3.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의 삶

찬 양

찬송가 322장

말 씀

시편 24편 1-6절

나 누 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질 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기 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의 손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거짓에 마음 두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적어보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암 송

시편 24: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3월 20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맨발로 울며 가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66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16장

오늘의 말씀 | 삼하 15-16장

15장에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아 전략상 도피합니다. 그는 이 시련과 고통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자신이 환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사독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16장에서 므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을 만나 므비보셋을 모함하고서 그 소유를 자신이 차지하였습니다. 또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나, 그 치욕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15:30-37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묘사합니다. 당시 맨발은 수치와 슬픔의 상징으로 철저한 회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도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철저한 복수에 치를 떨어야 할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더욱 철저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어려움과 아픔을 대하게 됩니까? 모든 일에 남 탓을 하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응답을 얻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에 남 탓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 지금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할 제물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2. 새가족 양육부를 위하여, 고척교회를 찾아온 새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양육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헌신하는 부서가 되게 하소서.
3.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지역이 되게 하소서. 전도하며 봉사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6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7-18장

오늘의 말씀 | 삼하 17-18장

당대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압살롬과 가까웠던 아히도벨의 책략으로 압살롬의 모반은 성공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진영에 가담하는 척하고 있었던 후새는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모략을 제시하고 압살롬은 후새의 모략을 택합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비보를 접한 다윗은 크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한편, 요압은 승전보를 전하려는 아히마아스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이외에도 요압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행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17:15-23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제시한 모략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새의 모략도 듣고자 하였습니다. 후새의 모략은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모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후새의 모략을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참패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관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도무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나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소서.
2. 전도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마다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직장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는 자들의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날들이 이르게 하여 주소서.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96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오늘의 말씀 | 삼하 19장

압살롬 반역 사건이 남긴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었고 이스라엘 지파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군대 장관 요압과의 감정도 극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 복귀 문제와 관련하여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었지만, 이는 지혜로운 처사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파들의 시기심을 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19:1-8

다윗은 압살롬의 배반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지만 결국 그 위기를 잘 넘기며 다시 왕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주위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처사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다해 헌신한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지 못하는 다윗을 향하여 요압은 강하게 질책합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속히 그 감정을 추스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왕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질책합니다.

감정은 늘 요동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롤러코스터와 같이 요동치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감정 또한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지나친 감정의 기복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친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구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 기쁨과 환희, 분노와 슬픔의 감정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온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2. 재정부를 위하여.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여 필요한 곳에 재정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3.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날들이 속히 정상화 되게 하여 주소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0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0-21장

오늘의 말씀 | 삼하 20-21장

세바의 반란 사건 과정에서 요압은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데 따른 질투와 적개심의 표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아벨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그 성의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세바의 머리가 요압에게 인계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살육극이 예방되었습니다. 21장 1-14절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수 9:15,26,27). 다윗의 적절한 조치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게 되었고 이어지는 내용(15-22절)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21:1-9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갑자기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전쟁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기근은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기근이 3년간 지속되자 다윗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을 죽여 버렸던 것을 다윗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근을 멈추기 위해 즉시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고난의 이유와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자신의 책임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2. 차량부를 위하여. 차량운행을 하는 차량부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밝은 모습으로 성도를 맞이하는 주차안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소서.
3.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9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오늘의 말씀 | 삼하 22장

본 장은 다윗이 지난날을 회고하며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찬양한 시입니다. 작시 연대는 대략 다윗이 이방 대적들을 정복한 후 밋세바와 더불어 범죈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오직 그분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22:1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본문 1절의 내용이 시편 18편에는 표제어로 되어있으며, 시편 18편 1절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다윗의 감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과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늘 도망해야만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든 다윗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시를 작성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2. 총무부를 위하여.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3.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장차 지역과 나라를 섬길 다음 세대들로, 거룩한 주의 군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깨어 있는 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68장
*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3-24장

오늘의 말씀 | 삼하 23-24장

2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이에 따른 축복을 노래하고, 사악한 자에게 임할 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매우 짧지만, 다윗의 심경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 탁월한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업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24장은 인구조사를 통해 다윗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하는 자만에 빠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하며 택일을 명하십니다.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 칠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대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 받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삼하 24:10-25

인구조사를 한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교만하고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결과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번영이 다윗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책할 만큼 영적으로 민감해 있었습니다. 밋세바를 범했던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록 죄를 짓기를 했으나 영적인 예민함은 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쌓은 제단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 늘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나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영적 민감함이 있습니까? 오늘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내일 드려야 할 주일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의 기도

1.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 죄에 대하여 늘 깨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예배부를 위하여. 예배부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고교회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소서.
3. 고교회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지의 모든 사역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찬 양

찬송가 399장

말 씀

마태복음 10장 28-33절

나 누 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낯선 환경 속에 적응해 나아가야 할 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워집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질 문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 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고 날마다 세 번씩 읽어 보세요.

암 송

마태복음 10: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월 27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1. 열왕기상의 저자와 배경

열왕기서의 저자로 유대 전승 탈무드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이는 열왕기서의 문체가 예레미야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는데, 열왕기하 25장 27~30절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진술을 감안한다면 열왕기서는 그 사건 전에 죽은 예레미야의 저술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B.C. 537년 즈음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 이전의 한 익명의 편집자에 의해 저작됐다는 가설이 더욱 무게감이 실립니다. 특히 열왕기상은 남북왕조의 멸망 이전에 기록된 역사적 문서들, 즉 솔로몬의 행장(11:41),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14:19), 유다 왕 역대지략(14:29;15:17)과 이사야서 등을 자료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던 열왕기상·하를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함락되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던 시기, 그리고 B.C. 537년 1차 바벨론 포로귀환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기,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B.C. 561년에 있었던 여호와긴 왕의 석방기록으로 볼 때, 그 기록시기를 B.C. 561-537년 사이로 좁혀볼 수도 있습니다.

2. 열왕기상의 주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가의 흥망성쇠는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의 내부적인 요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내용과 구조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의 4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점차 분열해 가는 통일왕국의 모습과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1부 - 솔로몬의 통일왕국(1-11장)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다윗의 유언을 통해 정적들을

숙청하는 솔로몬의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염원이었던 성전건축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 속에 이스라엘은 더욱 부국강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1부 말미에 가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왕국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2부 - 분열왕국 전반기의 역사(12-22장)

2부는 솔로몬이 죽은 후 남북 왕국의 전반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4대 왕 여호사밧(B.C. 872-848)까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8대 왕 아하시야(B.C. 853-852)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4. 열왕기상 시대의 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31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오늘의 말씀 | 왕상 1장

다윗 왕은 나이가 들어 늙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밋세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아도니야의 일을 알립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게 하여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1:22-31

아도니야는 왕이 되고자 자신들의 측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름을 받고 달려왔고 어떤 이들은 아도니야와 뜻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야의 일을 듣고는 서둘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 사독, 군대장관 브나야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고 응답합니다. 더욱이 39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치며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실이 바르며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아도니야가 스스로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의 차이점(7~8절, 39~40절)이 무엇입니까?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의 모습이 어떠할지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직장 혹은 나라의 리더가 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경험해보았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허락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2.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 각 공동체의 책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다윗의 유언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5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오늘의 말씀 | 왕상 2장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왕이 된지 40년에 다윗 성에 장사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정적들을 숙청합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아도니야를 처형하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추방합니다.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사독을 세웁니다. 이어서 군사령관 요압을 처형하고 브나야를 대신 세웁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선대하였던 바르실래의 자손들에게는 선을 베풀고 반대로 저주하였던 시므이에게는 솔로몬의 처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2:1-12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하나님 여호와와의 법도를 지킬 것과 솔로몬의 정적을 숙청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신을 선대했던 이들과 저주했던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도니야와 요압,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과 판단 때문에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 내가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남기고 싶습니까? 가족끼리 유언장을 만들어 공유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언제나 주님의 법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힘을 허락하소서.
2. 시온찬양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3.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구할 것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5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4장

오늘의 말씀 | 왕상 3-4장

솔로몬은 여호와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기브온에서 제사하며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현명한 재판을 이어나가고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부국강병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3:1-15

성전을 짓는 동안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재물, 마음가짐, 태도 등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그의 구할 것을 물었을 때에도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 나라가 평안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각자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정진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영향을 받거나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나를 통하여 주위가 변화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2.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삶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3. 세계 각국 선교지의 사역과 선교사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집

* 오늘의 찬송: 찬송가 60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5-6장

오늘의 말씀 | 왕상 5-6장

평소 다윗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솔로몬도 이에 화답하며 두 국가는 친분관계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에 필요한 목재들을 보내주고 솔로몬은 더욱 힘을 내어 성전건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6장 말미에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6:11-13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된지 4년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7년에 걸쳐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거할 궁보다도 성전을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머무를 집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것을 이루실 것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왕국에 이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솔로몬이었지만 이것은 결코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우선시하였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예배의 자리를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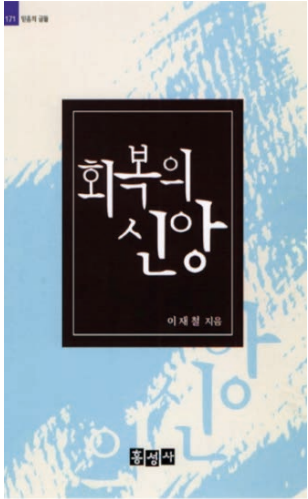
* 직장의 일이나 여행 중일 때, 혹은 질병 등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2. 화합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실로암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3. 주님께서 작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고척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회복의 신앙

이재철, 홍성사(2002)



코로나19 시국 지난 2년 동안, 기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으며 회복되어야 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월달 L-12 헌신예배와 리더헬퍼 교육의 주제가 ‘회복’이었듯이, ‘신앙회복’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핵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회복을 소망하는 분들께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 받은 스테디셀러 신앙 서적인 <회복의 신앙>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 집안을 대청소 할 때의 마음을 느낍니다. 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잊혀 버렸던 물건을 되찾듯이, 깨끗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들춰주고, 잊고 놓치고 있었던 바른 신앙과 인생의 가치를 발견케 합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도장지와 발육지를 제거해 주듯이, 신앙회복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삶의 모습과 자세를 버리도록 인도합니다. 책의 가이드를 따라서 차근차근 실천하려 한다면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옆의 목차에서 제시된 소주제들처럼 “나는 정말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참믿음과 참사랑의 사람인가? 신앙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바른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며, 꼭 일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을 찾고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목차>

1. 왜 믿을 것인가? (믿는 동기의 회복)

- 1) 인간 능력의 한계 2) 인간 생명의 한계 3) 인간 의의 한계

2.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

- 1)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아신다 2) 더 좋은 것을 주신다
- 3) 그의 나를 주신다 4) 지금도 일하신다
- 5) 자기부인의 사람을 사랑하신다 6) 만유보다 크시다
- 7) 그는 진리이다 8) 죽음의 순간에 받아주신다

3.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성령 충만의 회복)

- 1) 성령 충만: 욕망으로부터 자유함 2) 말씀으로 가득 참
- 3)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함 4) 책망에 귀 기울임
- 5) 진리 가운데 거함 6) 주님의 영광만 드러냄
- 7)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지님 8) 인간 지경의 확장

4.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참믿음의 회복)

- 1) 믿음은 순종이다 2) 믿음은 용기이다
- 3) 믿음은 시선이다 4) 믿음은 다루어지는 것이다
- 5) 믿음은 신실이다 6)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 7) 믿음은 자기 사랑, 자기 가꿈이다 8) 믿음은 자유다
- 9) 믿음은 삶이다

5. 어떻게 살 것인가? (참사랑의 회복)

- 1) 먼저 찾아가는 것 2) 먼저 말을 거는 것
- 3) 필요를 채워주는 것 4) 예의를 갖추는 것
- 5) 기회를 주는 것 6) 기회를 주는 것
- 7)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8) 본이 되어주는 것

6. 무엇이 될 것인가? (사람됨의 회복)

- 1) 사람으로서의 회복 2) 생명성을 회복하라
- 3) 사랑을 회복하라 4) 봉사성을 회복하라
- 5) 정직성을 회복하라 6) 겸손을 회복하라
- 7) 영성을 회복하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 신앙공동체의 힘

• 김 해 리 청년(청년공동체)



2020년 1월,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취업했다. 이곳에 입사하기 전, 두 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수습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했던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회사에 취업만 된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입사하며 얻은 기쁨도 잠시였다. 수습 기간이 얼마 남지 않

은 상태에서 파트장이었던 상사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 직장에서 왕따나 다른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매일 밤 늦게 회사에 거의 혼자 남아 야근하는 와중에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폭언은 나를 치절하다 못해 삶 자체를 내려놓고 싶게 만들었다. 결국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매주 상담센터와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해 추석 즈음에 그 사람의 눈을 피해 겨우 용기를 내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는 듯하더니 몇 주 지나고 나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팀장은 나에게 밥을 사 주며 눈 딱 감고 한 번만 넘어가자고 달랬고, 내가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만 나를 동정했다. 역시 이 회사 안에는 나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신고를 하기 전보다 오히려 신고했을 때 내 삶이 훨씬 더 치절하다고 느꼈다. 하나님

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매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며 원망하며 홀로 무너지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나 홀로 외롭게 무너질 뻔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 줄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청년공동체 담당 목사님이셨다. 목사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에게 ‘영상보다는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상 사역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다. 무엇보다 청년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누어 주실 때, 그동안 내 마음속에 없었던 교회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기면서 나의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시 목장 리더였던 한 청년이었다. 신앙의 1대로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나를 위해 매일 함께 기도해 주고, 매일 같이 메신저와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었다. 또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며 힘을 주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 사역을 하며 알게 된 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년공동체 부장 집사님 등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들 덕분에 나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비로소 나의 삶을 찾아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영적 회복을 위해 작년 상반기에 청년공동체 큐티학교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큐티학교에서는 8주 과정 중에 날마다 **[매일묵상]**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의 말씀의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는지, 또 말씀을 읽고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려울 때도 많고 시간을 내어 꾸준히 읽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매일묵상]** 덕분에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같은 말씀

을 읽고 큐티하며 각자 은혜받은 부분을 함께 나누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2022년 새해, 나는 청년공동체 2부 회장으로 선출되어 사역을 하고 있다. 2년 전 지금에 비하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전의 무너지고 약하기만 한 내 모습이라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끊어지지 않는 세 겹 줄을 나에게 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청년들,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어두운 과거는 잊고 새해에는 청년들의 리더로서 이전의 나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신앙공동체의 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매일 묵상을 한 은혜

• 윤 경 식(고등부 2학년)

“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외치는 말입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 성경 말씀을 성실히 읽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학교 공부가 아닌 예배로 나아가고,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냈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설교노트에 기록하여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묵상은 저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가지게 된 모태신앙인입니다. 하지만 14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명 '선데이 크리스찬'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읽기는 고사하고 기도조차도 주일 예배 시간 이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선 내가 잘되는 것에만 감사할 줄 알던 15살의 저에게 많은 세상의 유익을 허락하셨습니다. 학교 성적, 사람들과의 관계, 비전, 공동

체를 이끄는 일 등 무미건조했던 지난날들에 비해 화려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하나님의 손이 저의 삶을 흔드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았고, 이러한 고통은 더 심해져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자 성경을 펼쳐 보아도 어렵기만 한 말씀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준 저의 가치관과 개념과 사고방식을 뿌리째 뽑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저에게서 없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분의 치유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하심으로 저에게 매일묵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묵상은 성경을 읽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고, 매일 아침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지금, 저의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던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동행은 행동을 삼가며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모두 기도로 설교하여 내가 짊어진 짐이 없이 사는 삶이란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달 '위드유 가정예배' 실천표 소감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배수형(유년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배수호(고등부)



가정예배 중 질문과 실천 부분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과 일상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배수환(고등부)

예배드리면서 함께 좋아하는 찬양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천을 나누는 시간이 좋습니다.

- 최상선 집사(섬김-14)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 권혁모(은혜-7)

* 그 외에 실천표를 제출하신 분들입니다.

김용갑, 이숙진 집사, 김태연, 김하연(사랑-36), 정애희 권사(사랑-39)

* 모든 성도가 함께 가정예배를 실천합시다.

1인 가족이나 부부도 [매일묵상]의 '위드유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드리고 실천표를 꼭 제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 정 민 영 집사(주일3부찬양팀 보컬, 섬김-23)



주일 3부 찬양팀장으로 섬기고 계셨던, 목장 리더 집사님의 권유로 시작된 주일 3부 찬양 팀 사역이 올해로 어느덧 6년차가 되었습니다. 찬양 팀 보컬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말은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싶다'가 아닌 '한 번 해 보겠다'라는 다소 무책임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찬양 팀 보컬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음악적 재능도 찬양의 은사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만 내려 놔~'라고 하시면 나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 '네!' 하고 내심 쿨 하게 내려놓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찬양 팀 사역은 그렇게 별다른 기대와 믿음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 너머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수줍어서 마이크를 입에서 멀리 잡거나, 박수와 제스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꺾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뻗뻗하게 찬양 드리기 일쑤였습니다.

그토록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였던 저를...

그래서 언제라도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저를...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조금씩 다듬어 가시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6년째 사역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어가게 된 데에는 그동안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저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다

예배의 맨 앞에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가운데 갈급함을 주셔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찬양의 깊이를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려는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도 찬양으로 채워나간다

찬양팀 사역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일부러 찬양을 찾아서 듣거나 한 적이 거의 없었고, 익숙한 찬양 외에는 아는 찬양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는 일할 때 (재택 업무)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 가사 일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에도 찬양의 소리를 집안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들 모두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게 되고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지금은 흘러서 듣는 정도지만 언젠가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감사와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다

작년 12월 등에 생긴 종기 제거를 위해 긴급하게 외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거나 생활에 불편이 없었기에 병원 진료를 차일피일하며 지내온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가 느닷없이 염증을 일으켜 등이 쭈시고 아파왔습니다. 몰려오는 두려움 속에 급히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진료를 받는 중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게 기도 대신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듣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도 병원을 오가던 몇 날 며칠 동안 찬양의 가사 속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가사를 계속 읊조리게 하였고, 치료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훌쩍 지난 지금... 제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주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일상과 예배자의 삶을 계속 이여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역이 아닌 나를 내려놓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5년간 예배의 자리에서 저의 부족함을 그대로 사용하셨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특별한 재능과 은사로만 드러지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 나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이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와 삶의 자리에 온전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우크라이나

• 임 광택 선교사(파송 선교사, 은혜와 진리 신학교/생명의 길 교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위협에 대한 뉴스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당하는 설움을 당하다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의 지배를 받았고, 1991년 독립하면서 자주 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2014년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빼앗기고 동부 분쟁을 지금까지 겪고 있으며 지금 또다시 러시아의 침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4년 전혀 예기치 않게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강탈당하고 난 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군사적 행동을 취하여 국지전에 들어간 것이 벌써 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분쟁 지역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 모든 사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의 위협을 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빼앗기고 동부 분쟁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선을 서방으로 돌리게 되면서 EU 가입과 나토 가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EU는 경제 공동체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나토는 군사동맹체로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군과 미군 그리고 미사일 기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며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는 옛 영광인 제정러시아 시대로의 회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기에 권좌에 있는 한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지 우크라이나에서도 48% 정도는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39% 정도는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 다수가 지금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으며, 소수는 수도인 키예프 침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10만이 넘는 군인들과 각종 무기들을 준비해 두고, 북쪽 벨라루스와 동부를 거쳐 남쪽 크림반도까지 3면으로 우크라이나를 포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병력들과 무기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25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 대한 여행정보를 3단계로 격상하여 15개 주에서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교민들에게 권고하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수도 키예프가 15개 주에 포함됩니다. 많은 교민들이 철수 권고에 본국으로 이동을 하였고, 선교사들도 또한 주변국이나 본국으로의 이동했거나 이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교인들과 사역자들은 외부에서 느끼는 것처럼 강하게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며 모든 사역들과 생활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들이 안전 때문에 사역과 교인들을 버리고 가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상 7:14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사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의 위협 속에서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묻게 됩니다.

고척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이 현장에서 큰 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크라이나를 안전케 하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소식

3월

교회

- 월삭새벽기도회 | 1일(화)
- 재의 수요일, 꿈샘 문화교실 개강 | 2일(수)
- 봄 일체심방 시작 | 5일(토)
- 찬양 아카데미 시작 | 6일(주일)
- 남선교회 주일 | 13일(주일)
- 기도학교 개강 | 17일(목)
- 마더와이즈 자유3기 개강 | 19일(토)
- 이단대응 세미나 | 27일(주일)

교회학교

- 어와나 1학기 개강 | 6일(주일)
- 은빛시니어 1학기 개강 | 17일(목)

예배시간 안내

G O C H E O K . P R E S B Y T E R I A N . C H U R C 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memo.

'위드유'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가정예배 실천표'를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달 첫째 주일에 추첨하여 3가정에 [사랑나눔 간식 쿠폰]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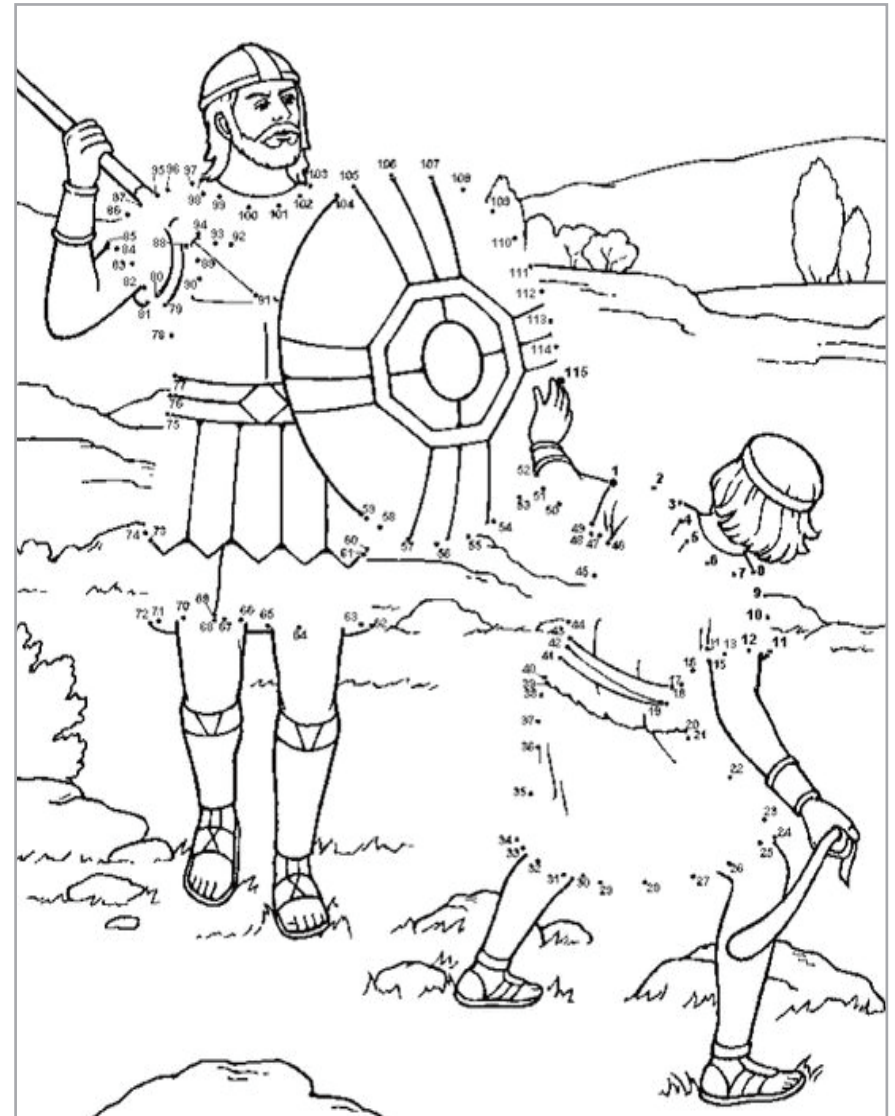
3월 가정예배 실천표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주간	실천 (0로 표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짧은 간증과 소감]	

다윗과 골리앗

숫자 순서대로 선을 연결해보세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고 다윗이 한 말을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1절을

느려주세요! 말라-

너희는 많은 짐-새별보다 가벼우니라-

시편 24편 1절

대-고. 거기에 호만-왕. 것과
세-기-와. 그 기-운-대-이-에 사-는 자-들-은
대-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1차 3주

차-삼차리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차-나-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만능 위력의 차-나-나-이시며

갯새끼기 45자 5자

갯새끼들이 나를 이 못에 팔아-다-고 음새
갯새끼-지 마새 새탄-지 마새
새나-니이 새새를 갯새-새리고
나를 갯새새는 새새 새새나-이-다-